

고요한 세계

-김경철을 기리며

유국환

들을 수 없어도 나는 보았지요
꺼칠한 손으로 애교머리를 쓸어내리는 여동생의 꿈을

말할 수 없어도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요
기와를 굽더라도 어무이 배끓지 않게 하겠다고

가가 어릴 때 경기가 왔ندی
나가 뭘 모르게 마이싱을 많이 맞아부러트제
그 이후로 귀가 먹어버렸어

사람들이 유행가에 어깨를 들썩이는 날이었지요
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
당신과 나의 꿈을 안고서 흘러만 갑니다

너 데모했지, 연락병이지?
어디서 병어리 흥내 내?
손사래질 위로 햇살보다 몽둥이가 먼저 쏟아졌습시다
까마득한 곳에서 어무이 말소리가 들렸지요
내일 하고 모레면 부처님 오신 날인디

가가 기와를 굽다가 가운데 손가락이 찢렸부러트어
다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요래조래 찾아봉께
가운데 손가락 없는 애가 눈에 딱 들어오던 걸

올해로 마흔 번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지만
울 어머니가 아들을 쓰다듬을 때마다
시커먼 땅속에서는
파란 잔디와 뜨거운 햇살이 살아난다니께요.